

【논문】

하이데거 사상과 포퍼 사상의 비교연구 I

양자의 과학관을 중심으로

박 찬 국*

【주제분류】 현상학, 과학철학

【주요어】 하이데거, 포퍼, 과학, 반증이론, 주위세계, 주제화, 죽음에로의 선구

【요약문】 하이데거와 포퍼는 인간과 세계, 과학과 철학, 그리고 사회와 역사 등 거의 모든 철학적인 주제에 대해서 대극적인 입장에서 서 있는 철학자들이다.

포퍼는 과학적인 이성과 과학적인 이성에 입각한 열린 대화야말로 인간과 세계에 대해서 가장 신뢰할만한 이해를 가능케 하는 것으로 본다. 이에 반해 하이데거는 과학 이전의 우리의 생활세계 자체가 인간 자신과 사물들 그리고 세계에 대한 이해에 입각해 있는 것으로 보는 동시에 이러한 일상적인 세계이해를 시와 예술을 통해서 심화하고 정화하는 것만이 인간과 세계에 대한 보다 근원적인 이해를 가능케 하는 것으로 본다. 하이데거에게 시와 예술은 사람들의 단순한 주관적인 감정의 표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과학보다 훨씬 더 심원하고 근원적인 세계이해를 전달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양자 간에 존재하는 이러한 본질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아니 이러한 차이 때문에 양자 간에는 대화가 가능하고 필수적이라고 생각된다. 본인은 포퍼와 하이데거 각자가 과학과 현대 그리고 인간과 세계를 보는 흥미 있는 시각을 제시했다고 본다. 그리고 각각의 시각은 일정한 한계 내에서는 정당성을 갖지만 그것이 절대화될 경우에는 현실과 역사의 어떤 측면만을 강조

* 서울대학교 철학과

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본다. 본 연구는 이런 맥락에서 양자의 과학관을 중심으로 하여 포퍼와 하이데거의 사상을 비교한 후 양자 간의 생산적인 대화를 매개하려고 한다. 이 논문에서는 일단 초기 하이데거의 사상과 포퍼의 사상을 비교할 것이며, 양자 간의 생산적인 대화를 매개하려는 시도는 후기 하이데거의 사상과 포퍼의 사상을 비교하는 두 번째 논문에서 행해질 것이다.

I. 들어가면서

하이데거와 포퍼는 인간과 세계, 과학과 철학, 그리고 사회와 역사 등 거의 모든 철학적인 주제에 대해서 대극적인 입장에서 서 있는 철학자들이다.

포퍼는 과학적인 이성과 과학적인 이성에 입각한 열린 대화야말로 인간과 세계에 대해서 가장 신뢰할만한 이해를 가능케 하는 것으로 본다. 이에 반해 하이데거는 과학 이전의 우리의 생활세계 자체가 인간 자신과 사물들 그리고 세계에 대한 이해에 입각해 있는 것으로 보는 동시에 이러한 일상적인 세계이해를 시와 예술을 통해서 심화하고 정확하는 것만이 인간과 세계에 대한 보다 근원적인 이해를 가능케 하는 것으로 본다. 하이데거에게 시와 예술은 사람들의 단순한 주관적인 감정의 표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과학보다 훨씬 더 심원하고 근원적인 세계이해를 전달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양자 간에 보이는 이러한 차이는 포퍼가 20세기 후반의 자유민주주의적인 서구세계를 이제까지 존재했던 가장 좋은 세계로 보는 반면에, 하이데거가 그것을 존재망각의 극단으로서 인간과 자연의 황폐화가 갈 데까지 간 세계로 보는 데서 정점에 달한다. 이와 관련하여 포퍼든 하이데거든 20세기의 주요한 현상 중의 하나인 전체주의를 극복하는 것을 중요한 사상적 과제로 삼았지만 전체주의의 기원과

그것의 극복방안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 포퍼는 이들 전체주의적인 이데올로기들이 과학의 이름을 빌어서 자신들을 정당화하는 데 주목했다. 따라서 그는 그것들이 사이비 과학에 불과하며 진정한 과학은 무엇인지를 제시함으로써 사람들을 전체주의적인 이데올로기들의 기만적인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려고 했다. 그리고 포퍼는 과학의 본질적인 특성을 비판적인 정신에서 찾으면서 이러한 비판적인 정신을 보장하는 사회체제로서 자유민주주의를 내세우고 있다.

이에 반해 하이데거는 나치체제나 공산주의체제처럼 노골적으로 전체주의적인 사회체제 뿐 아니라 개개인들의 주체성과 자유를 내거는 자유주의 사회도 실질적으로는 사회구성원들을 사회의 기능 인자에 불과한 것으로 취급하는 전체주의라고 본다. 따라서 하이데거는 포퍼가 주장하는 것처럼 전체주의적인 이데올로기가 아닌 과학적인 접근방식을 사회 문제의 해결에 적용할 경우에도 사람들이 존엄한 존재로서 대우 받는 사회가 성립되리라고 보지는 않는다. 하이데거는 이러한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간을 비롯한 모든 존재자들을 계산 가능한 에너지원으로 보는 기술적인 존재이해를 넘어서 근원적인 존재이해를 건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본다.

양자 간에 존재하는 이러한 본질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아니 이러한 차이 때문에 양자 간에는 대화가 가능하고 필수적이라고 생각된다. 본인은 포퍼와 하이데거 각자가 과학과 현대 그리고 인간과 세계를 보는 흥미 있는 시각을 제시했다고 본다. 그리고 각각의 시각은 일정한 한계 내에서는 정당성을 갖지만 그것이 절대화될 경우에는 현실과 역사의 어떤 측면만을 강조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본다. 본 연구는 이런 맥락에서 양자의 과학관을 중심으로 하여 포퍼와 하이데거의 대화를 매개하려고 한다.

하이데거와 포퍼 사이에서 보이는 차이는 단순히 두 사상가만의 차이가 아니라 현대유럽대륙철학의 중심적인 사조(思潮)였던 현상학 및 해석학과 현대영미철학의 중심적인 사조였던 분석철학 사이의 차

이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그 동안 이 두 사조 간에는 생산적인 대화보다는 서로에 대한 몰이해와 무시가 지배적이었다고 생각된다. 물론 쿤(Thomas Kuhn)과 파이어아벤트(Paul Feyerabend)의 과학철학 그리고 가다머(Hans-Georg Gadamer)의 해석학에서 보이는 것처럼 근래에는 영미의 분석철학과 유럽대륙의 해석학이 근접해 가는 경향도 보이지만, 두 사조 간에는 여전히 건설적인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두 사조 간의 대화 부재는 한국의 현 철학계에서는 훨씬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한국에서 전문적으로 철학하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역설적으로 철학인들이 자신의 전문분야에만 몰입하는 경향이 강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동양철학과 서양철학 간에는 물론이고 서양철학에서도 상이한 철학적 흐름들 사이의 대화는 갈수록 희박해져가고 있다. 이러한 철학계의 현실에서 하이데거와 포퍼의 사상을 양자의 과학관을 중심으로 비교하는 것은 두 사상가 간의 대화 뿐 아니라 그동안 서로 대립적인 입장을 취해온 두 철학사조 간의 생산적인 대화를 매개한다는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본 연구자가 하이데거와 포퍼의 사상을 특히 양자의 과학관을 중심으로 고찰하려고 하는 것은 다음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로 포퍼에게는 말할 것도 없고 하이데거에게도 근대 과학은 극히 중요한 철학적 주제로서 고찰되고 있기 때문에 양자 간의 사상적인 차이는 ‘과학이란 무엇이나’에 대한 이해에서 가장 잘 드러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둘째로 현대는 과학기술문명이라고 불릴 정도로 과학이 지대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양자의 과학관을 살펴보는 것은 과학의 본질적인 성격에 대한 두 사람의 사상이 갖는 차이 뿐 아니라 현대문명의 본질적 성격과 현대문명이 장차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삶과 사회형태에 대한 양자 간의 견해 차이도 분명히 드러내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하이데거와 포퍼의 사상을 과학관에 한정하여 살펴본다고 하더라도 두 사람의 사상을 함께 다뤄야 했기 때문에 지면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따라서 본인은 본 연구의 결과를 두 개의 논문으로 나누어 발표할 예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논문이 최대한 독립적인 성격을 갖도록 구성했다.

본 연구는 다음 두 논문으로 구성될 것이다.

현재의 논문인 첫 번째 논문에서는 초기 하이데거와 포퍼의 과학관을 비교할 것이다.

그런데 하이데거의 과학관은 초기와 후기에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바, 두 번째 논문에서는 후기의 하이데거와 포퍼의 과학관을 비교할 것이다. 아울러 이 두 번째 논문에서는 그 동안의 연구를 토대로 양자의 통찰을 서로 매개하고 종합함으로써 양자 사이의 생산적인 대화를 모색하려고 한다.

II. 포퍼와 초기 하이데거의 과학관 비교

1. 포퍼의 과학관

포퍼의 철학에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과학이란 무엇인가’라는 문제다. 과학이 무엇인지는 언뜻 보아서 극히 자명한 것처럼 보인다. 사람들은 흔히 과학은 귀납적인 경험적 방법에 입각한 학문이라는 점에서 사이비 과학 혹은 형이상학으로부터 구별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통상적인 생각에 반해서 포퍼는 헤겔의 형이상학이나 점성술은 방대한 경험적 증거를 가지고 있지만 과학이 아니며,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이나 마르크스주의도 수많은 사례에 의해서 검증되었지만 과학이 아니라고 본다.¹⁾

포퍼는 과학적인 이론은 수많은 사례에 의해서 검증되는 이론이 아니라 자신이 반박 내지 반증될 수 있는 조건을 분명히 제시하는

1) 칼 포퍼, 『추측과 반박』(Conjectures and Reputations), 이한구 역, 민음사, 2001, 76쪽.

이론이다. 이에 반해서 자신의 주장을 애매하게 개진함으로써 항상 입증되는 듯하지만 어떻게 하면 그 주장이 반증될 수 있는지를 분명히 제시하지 않는 이론은 비과학적인 이론이다.

예를 들어서 ‘내일 서울에서 비가 내린다’는 관찰명제를 뒷받침하는 기후(氣候) 이론은 과학적인 이론이다. 그리고 그것이 과학적인 이론인 이유는 그것은 자신이 반증될 수 있는 조건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이론은 내일 서울에 비가 오면 반증된다. 사람들은 그 이론이 타당한지를 알기 위해서는 내일 비가 오는지 오지 않는지를 보면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과학적인 이론은 그것이 사실에 부합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관찰명제를 연역적으로 함축하며 그러한 관찰명제에서 예견되는 사건과는 다른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금지하는 이론이다. 우리가 기후에 관한 어떤 이론에서 ‘내일 서울에서 비가 내린다’는 관찰명제를 연역적으로 끌어낼 수 있을 경우 그러한 이론은 ‘내일 서울에서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을 절대적으로 금한다’. 그것은 ‘내일 서울에서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것을 자신의 반증조건으로 갖는 것이다.

이와 같이 자신의 이론에서 필연적으로 연역될 수 있는 사건 이외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분명하게 금지하는 이론이 훌륭한 과학적 이론이다. 이에 반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분명하게 금하지 않고 오히려 서로 모순되는 사건들마저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사건에 의해서도 논박될 수 없는 이론은 비과학적이다. 즉 어떤 이론에 대한 논박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듯이 그 이론의 장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단점이 되는 것이다.²⁾

훌륭한 과학적 이론의 대표적인 것으로 포퍼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을 든다. 1919년, 아인슈타인은 상대성이론을 제기하면서 상대성이론이 만약에 참이라면 태양 곁을 지나가는 빛은 태양의 강한 중력장에 의해서 직진하지 못하고 휘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아인슈

2) 칼 포퍼, 위의 책, 81쪽.

타인의 이론에서 우리는 ‘태양 곁을 지나가는 빛은 휘게 된다’는 관찰명제를 연역해 낼 수 있다. 달리 말해서 아인슈타인의 이론은 ‘태양 곁을 지나가는 빛이 휘지 않는다’는 사태를 절대적으로 금한다. 따라서 우리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태양 근처를 지나가는 빛이 과연 휘는지를 실험해 보면 된다. 이러한 실험을 통해서 실제로 태양 근처를 지나가는 빛은 휘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며 아인슈타인의 이론은 참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서 뉴턴의 이론에 입각하면 태양 곁을 지나가는 빛도 휘지 않기 때문에 뉴턴의 이론은 반박된 셈이고 거짓으로 판명이 난 셈이다.³⁾

그러나 이는 아인슈타인의 이론이 절대적인 진리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과학적인 이론에서 연역적으로 도출되는 관찰명제가 실험과 관찰에 의해 부정되지 않는 한, 그 과학적인 이론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지식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어떤 과학의 이론 체계가 참으로 인정받는 것은 그것이 많은 사례들에 의해서 검증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온갖 반박 시도를 통해서도 그것이 거짓이라는 사실이 아직 입증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모든 과학이론은 아직 반박되지 않는 한에서만 참일 뿐 언제든지 반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절대적인 참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과학이론은 항상 추측 내지 가설의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과학적 이론은 그것이 사실에 부합되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관찰명제를 연역적으로 함축하며 그러한 관찰명제에서 예견되는 사건과는 다른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금지하는 이론이라는 사실로부터 우리는 과학이론이 갖는 또 다른 함축을 끌어낼 수 있다. 즉 과학적 이론은 금지하는 사건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것은 보다 더 과학적인 이론이 된다. 예를 들어 ‘내일 한국에는 비가 올 것이다’라는 관찰명제를 함축하는 이론보다는 ‘내일 2시에 한국에서는 오직 경기도 지역에서만 비가 올 것이다’라는 관찰명제를 함축하는 이론이 훨씬 과학적이다. 이는 후자의 이론이 금지하는 사건들이 전자의 이론보다

3) 칼 포퍼, 위의 책, 80쪽.

도 훨씬 많기 때문이다. 금지할 사건이 훨씬 많다는 것은 반증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훌륭한 과학적인 이론일수록 반증될 가능성이 훨씬 높은 대담한 성격을 갖는 것이다. 모범적인 과학자들일수록 기존의 이론을 뒤엎으면서 맞을 확률이 적은 대담한 이론을 제시하면서도 자신들의 가설을 반증할 수 있는 분명한 실험방법을 제시한다.⁴⁾

반증가능성이라는 기준에 입각하여 우리는 많은 주장이나 이론의 과학성 여부를 평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무당이 ‘귀신들린 사람의 병을 무당의 굿과 굿을 부탁한 사람의 정성으로 고칠 수 있다’고 말할 때 그러한 주장이 설령 수많은 사례들에 의해서 검증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과학적인 주장으로 간주될 수 없다. 굿으로 병을 고치지 못하게 될 경우 무당들은 흔히 굿을 부탁한 사람의 정성이 깊지 않아서 실패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무당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정성을 다 하는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다. 무당은 자신의 주장이 반증될 수 있는 조건을 분명히 제시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무당은 굿이 실패할 때는 언제든지 손님의 정성이 부족해서 실패했다고 발뺌을 할 수가 있게 된다. 따라서 ‘굿과 굿을 부탁한 사람의 정성으로 병을 고칠 수 있다’는 말은 반박이 불가능한 비과학적 주장이 된다.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비과학적인 것으로 인정하는 무속의 주장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과학적인 이론으로 간주되는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이나 마르크스의 이론체계도 포퍼의 반증이론에 의하면 비과학적인 이론이 된다.

프로이드의 정신 분석학은 환자가 무슨 말을 하던 정신분석학의 이론과 양립할 수 있도록 그것을 해석할 수 있다. 현재 아버지를 증오하는 사람이든 사랑하는 사람이든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은 오이디푸스 이론에 부합되게 해석할 수 있다. 어떤 환자가 아버지를 증오한다고 인정할 경우에 그것은 프로이드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이론을 확증하는 것이 된다. 그런데 그 환자가 자신의 아버지를 증오한다

4) 칼 포퍼, 위의 책, 81쪽, 122쪽.

는 것을 부인할 경우에는 프로이드의 이론은 그는 자신이 아버지를 증오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가 두려워서 아버지에 대한 증오를 억압하고 있다고 해석한다. 이 경우 프로이드 이론은 서로 모순되는 관찰명제를 함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어떠한 관찰명제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 된다. 즉 그것은 도저히 반증이 불가능한 이론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비과학적인 이론이다.

마르크스주의도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것을 마르크스주의와 양립하도록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마르크스주의는 자본주의 사회가 경제 위기를 겪을 경우 그것을 자본주의가 내적인 모순을 견디지 못하고 붕괴하고 있다는 자신의 이론을 확증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런데 그 사회가 공황을 겪지 않을 경우 마르크스주의는 그것을 노동 계급이 아직 충분히 의식화되지 않았기 때문이거나 이윤율이 아직 충분히 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를 끌어들어서 설명한다. 마르크스주의는 이렇게 다양한 보조가설들을 끌어들이는 것을 통해서 논박에서 벗어났는지 모르나 그들은 그 결과 자신의 이론을 논박될 수 있는 조건을 분명히 제시하지 않는 비과학적인 이론으로 만들어 버렸다.⁵⁾

포퍼는 서로 모순되는 현상들마저도 자신들의 이론에 부합되게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의 경우에는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시험해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어떠한 유익한 정보도 제공해 줄 수 없다고 본다. 프로이드의 이론은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을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에 걸린 사람으로 볼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어떠한 구체적인 정보를 주지 않는다. 아울러 마르크스주의 이론도 자본주의가 언젠가는 붕괴한다고 말할 뿐 언제 어떻게 붕괴할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구체적인 정보도 주지 않는다.

이런 맥락에서 포퍼는 진화론도 과학적인 이론이 아니라 하나의 ‘형이상학적인 연구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했다. 진화론자들은 관찰 결과들이 어떻게 드러나든지 진화론과 부합하도록 그것들을 해석할

5) 칼 포퍼, 위의 책, 83쪽.

뿐, 어떠한 생물이 어떠한 방향으로 진화할지에 대해서는 전혀 예측하지 못하며 단지 지난 사실들만을 자신들의 이론에 맞춰서 그럴 듯하게 해석할 뿐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포퍼는 프로이트나 마르크스의 이론 그리고 진화론이 무의미하고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포퍼는 그것들은 중요한 통찰을 제시하고 있으며 프로이트의 심리학은 장차 실험심리학에, 마르크스의 이론은 경제학에, 그리고 진화론은 생물학에 큰 기여를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았다.⁶⁾

포퍼는 과학적인 가설이라는 것도 예술가들의 표현이나 형이상학적인 이론체계나 종교와 마찬가지로 상상력의 소산에 불과하다고 보기 때문에, 형이상학적인 명제는 나중에 과학이 반증 가능한 이론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통찰을 제시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러한 상상력의 소산이 그것으로부터 반증이 가능한 관찰명제를 연역적으로 도출할 수 있는 이론이 될 경우에만 그것은 과학적인 가설이 된다.

2. 전기 하이데거와 포퍼의 과학관 비교

하이데거의 사상은 보통 전후기로 나뉜다. 전기의 하이데거사상과 후기의 하이데거 사상이 구별되는 가장 큰 차이는 전기의 하이데거가 인간 현존재의 역사성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탐구를 비역사적으로 행하고 있는 반면에 후기 하이데거의 철학은 철저하게 역사적인 방식으로 전개된다는 데 있다고 볼 수 있다.

『존재와 시간』이란 저작 안에 응집되어 있는 전기 하이데거의 사상은 현존재가 통시대적으로 가질 수 있는 보편적인 존재방식을 분석하고 있다. 전기의 하이데거는 근대과학의 탄생도 특정한 역사적인 맥락에서 탄생된 것으로 보기보다는 현존재가 일상적인 생활세계에서 관계하는 도구적인 존재자(das Zuhandene)들로부터 도구성을 박

6) 칼 포퍼, 위의 책, 84쪽.

탈하고 눈앞의 존재자(das Vorhandene)로 변양시키는 것에 의해서 성립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일상적인 생활세계는 모든 시대에 동일한 구조를 갖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존재자들을 눈앞의 존재자로서 파악하는 관점변경도 어떤 시대에나 가능한 것으로서 고찰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해 존재역사적인(seinsgeschichtlich) 사유라고도 불리는 하이데거의 후기사유에서 근대과학은 근대에 특유한 존재 이해와 진리이해에 근거하고 있으며, 존재망각의 심화과정으로 특징지어지는 서양의 특정한 역사적인 맥락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고찰되고 있다.

과학의 본질에 대한 전기 하이데거의 사상과 후기 하이데거의 사상 사이에는 이렇게 무시할 수 없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기 하이데거의 과학관과 후기 하이데거의 과학관을 분리하여 분석할 것이다. 본 연구의 첫 번째 논문인 이 논문에서는 전기 하이데거의 과학관을 다룰 것이며 다음 기회에 후기 하이데거의 과학관을 포퍼의 과학관과 비교할 것이다.

1) 전기 하이데거의 과학관 - 과학의 발생과 본질에 대한 실존론적인 이해

포퍼가 가설의 정립과 시험을 통한 가설의 검토라는 방식으로 행해지는 비판적인 사고방식에서 과학의 본질을 찾고 있는 반면에, 전기의 하이데거는 과학의 본질을 세계-내-존재의 특정한 존재방식이라는 데서 찾고 있다. 그것은 현존재가 존재자와 관계하는 특유한 방식이라는 것이다. 그것은 존재자들을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사용하고 이용하는 일상적인 삶의 태도와는 달리 존재자를 그것이 ‘있는 그대로’ 파악하려는 태도에 근거하고 있다.

한 인간은 다른 존재자들과 다른 인간들로부터 고립된 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과 항상 관계하면서 존재한다. 인간은 근대의 합리주의적인 인식론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객체에 대한 선형적인 인식을 가지면서도 객체와 무관하게 존재하는 독립적인 의식도 아니

며, 경험주의적인 인식론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존재자들로부터 우선 순수한 감각자료들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주관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식으로 존재자들과 관계하는 존재도 아니다. 근대의 합리주의적인 인식론이든 경험주의적인 인식론이든 양자 간에 존재하는 차이에도 불구하고 양자는 인간의 세계-내-존재적인 성격을 간과하면서 한 인간을 다른 존재자들과 다른 인간들로부터 독립된 고립된 주체라고 보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우리가 존재자들과 관계할 때 우선적으로 접하는 것은 감각자료가 아니라 망치나 자전거 그리고 친구나 스승 등과 같은 존재자 자체다. 그리고 우리는 우선 그것들을 눈앞의 객체로서 관찰하는 방식으로 그것들과 접하는 것이 아니라 망치나 자전거를 사용하고 친구나 스승과 악수하고 대화하는 방식으로 그것들과 관계한다. 하이데거가 인간을 세계-내-존재로서 파악할 때 그것은 우선은 인간이 존재자들을 망치나 자전거로서 사용하며, 친구나 스승과 대화하고 그것들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살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이렇게 존재자들과 관계하는 구체적인 삶의 세계를 하이데거는 주위세계(Umwelt)라고 부르고 있다.⁷⁾

이러한 주위세계에서 존재자는 어떤 것은 현존재의 목적에 합당한 것으로 어떤 것은 현존재의 목적 실현에 방해가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우리의 일상적 삶에서 존재자는 우선 도구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드러나는 것이다. 존재자가 이렇게 도구로서 드러날 경우 그것은 자신의 존재의미를 목적들의 지시 연관의 전체 안에서 갖게 된다. 예컨대 장도리는 못을 박기 위한 것이고, 못은 옷을 걸기 위한 것이며, 현존재가 못에 옷을 건다는 것은 자신의 옷을 구겨지지 않게 잘 보관하기 위한 것이다. 장도리는 못을 지시하며, 못은 궁극적으로는 옷을 잘 보존하려는 현존재의 관심을 지시한다. 모든 도구적 존재자는 이러한 사용목적들의 전체적인 연관 안에서 자신의 존재 의미를 획득하며 자신을 어떠한 존재자로서 드러내는 것이다.

7) Martin Heidegger, *Sein und Zeit*, Tübingen, 1972, 66pp

따라서 어떤 존재자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이러한 목적 연관의 전체가 이미 개시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목적 연관의 전체가 바로 인간이 어떤 특정한 존재자 내지 도구를 사용하기 전에 이미 그 안에서 거주하는 세계이다. 이러한 전체성으로서의 세계는 존재자가 드러나기 위한 가능성의 조건으로서 세계 내에 드러나는 존재자보다 ‘앞서서’ 존재하는 것이다. 달리 말하자면 세계는 존재자의 개시를 위해서 아프리오리하게(a priori) 개시되어 있다. 세계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존재자의 총합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자가 도대체 드러나기 위해서 이미 드러나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이러한 목적연관의 전체에 이미 나가 있고 이러한 목적연관의 전체로부터 존재자와 관계한다.⁸⁾

존재자에 대한 이러한 실천적 교섭으로부터 존재자에 대한 과학적인 탐구는 어떻게 해서 발생할 수 있는가? 사람들은 보통 존재자에 대한 과학적 탐구는 존재자들에 대한 실천적 교섭이 중단하고 그것을 객관적으로 관찰함으로써 시작된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존재자에 대한 과학적 탐구는 그것에 대한 실천적인 교섭을 중단하고 그것을 단순히 관찰하는 것을 통해서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존재자에 대한 실천적인 교섭을 중단하고 존재자를 관찰하는 것은 그 동안 수행된 것을 점검하는 것일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관찰은 사용되고 있는 도구나 실천적 상황에 사로잡혀 있으며 다음의 실천적 교섭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기 위해서 행해진다.

아울러 과학적인 탐구의 특성을 존재자들과의 실천적인 교섭의 중단이나 결여에 있다고 보는 견해는 과학적 탐구 자체에도 특유의 실천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타당하지 않은 견해라는 것이 밝혀진다. 예를 들면 현미경으로 관찰하는 데에는 표본제작이 필요하다.⁹⁾ 존재자들과의 일상적인 실천적 교섭과 과학에서 이루어지는 모

8) 하이데거의 세계개념에 대해서는 Martin Heidegger, 위의 책, 66pp에서 88pp 참조.

든 종류의 실천적인 작업은 후자가 존재자에 대한 순수한 관찰과 탐구를 위해서만 행해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존재자에 대한 과학적인 관찰과 탐구는 존재자에 대한 실천적인 교섭에서 이루어지는 관찰이나 조사와는 전적으로 성격을 달리 한다. 존재자에 대한 실천적인 교섭에서 이루어지는 존재자에 대한 이해는 이러한 존재자들이 도구적인 존재자들로서 서로 간에 맺고 있는 목적과 수단의 연관 전체에 대한 이해에 근거한다. 따라서 존재자들에 대한 실천적 교섭에서 행해지는 존재자에 대한 이해는 고려(Überlegung)의 방식으로 행해진다.¹⁰⁾ 이러한 고려는 ‘이러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라면 어떠한 것이 필요하다’라는 형식을 띤다. 실천적인 교섭의 차원에서 행해지는 관찰이나 조사도 이러한 실천적인 고려의 성격을 띠며 그것은 주위세계 내에서 현존재가 현재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를 드러내는 것을 목표로한다. 따라서 그것들은 어떤 존재자가 갖고 있는 객관적인 성질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망치를 사용하면서 ‘이 망치는 너무 무겁다’거나 ‘너무 가볍다’고 말할 수 있다. 이 때 그 말은 ‘이 망치는 사용하기 너무 힘이 든다’거나 ‘너무 가벼워서 굵은 못을 박기에는 부적합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망치는 무겁다’는 말은 단순히 그것이 중량, 즉 무게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달리 말해서 ‘그것은 그것이 올려져 있는 받침대에 압력을 가하고 있어서 받침대를 제거하면 낙하하는 성질을 갖는다’는 사실을 의미할 수도 있다. 이 때 그 말은 도구가 사용되는 삶의 맥락에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어떤 질량을 갖는 존재자 그 자체에게 고유하게 속하는 것’을 주목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이 때 주시되고 있는 것은 작업 도구로서의 망치에 고유한 것이 아니라 중력법칙의 적용을 받는 물체로서의 망치에 고유한 것이며 이 경우 망치가 가지고 있는 도구적인 성격은 의의를 상실하고 만다.¹¹⁾

9) Martin Heidegger, 위의 책, 358pp.

10) Martin Heidegger, 위의 책, 359pp.

‘망치가 무겁다’는 물리학적 진술에서는 망치의 도구적인 성격이 사상되고 있을 뿐 아니라 모든 도구적인 존재자가 생활세계에서 속하는 고유한 ‘자리’도 사상된다. 망치는 그것을 사용하는 삶의 전체적인 연관에서 사용하기 적합한 곳에 두어져야만 한다. 그것에게는 그것이 놓여야 할 적당한 자리가 존재한다. 그러나 망치가 물리학적 진술의 대상이 될 때 망치가 놓이는 자리는 다른 자리와 비교해서 아무런 특징도 갖지 않는 공간상의 한 위치가 되고 만다. 생활세계의 필요에 따라서 정해지는 도구들의 자리들은 그러한 생활세계적인 의미를 상실하고 우주공간 내의 순수한 위치들로 변양된다. 아울러 생활세계의 목적과 필요에 따라서 요청되는 존재자들에게만 관심이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일체의 눈앞의 존재자들이 주제가 된다.¹²⁾ 즉 망치가 당장 관찰의 주제가 되더라도 그것은 중력의 법칙이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물체들 전체의 한 사례로서 주제가 되고 있을 뿐이다.¹³⁾

11) Martin Heidegger, 위의 책, 360pp 이하.

12) Martin Heidegger, 위의 책, 362pp.

13) 인간의 인식이 우선은 감각자료들을 수용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고 보는 근대적인 인식론은 과학적 인식방식을 우리가 존재자들과 관계하는 근본적인 방식으로 보는 데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근대과학이 존재자들을 그것의 객관적인 구성요소로 분리시켜서 분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근대인식론은 우리의 인식도 존재자들의 구성요소 각각에 대한 감각자료에 입각하여 성립하는 것으로 본다. 예를 들어서 근대과학에서 망치는 주위세계적인 의미를 상실하고 쇠와 나무라는 객관적인 성분들의 결합체로서 나타난다. 망치는 쇠와 관련해서는 우선은 단단하고 차갑게 느껴지고 검게 보이는 감각자료와 나무와 관련해서는 딱딱하고 고동색으로 보이는 감각자료의 결합체로 나타나며 이러한 감각자료들의 종합에 근거하여 우리는 존재자가 무엇인지를 인식하고 이러한 인식에 입각하여 존재자들과 관계한다고 보는 것이다.

하이데거는 이러한 근대적인 인식론은 존재자들에 대한 과학적인 탐구를 존재자에 대한 가장 일차적인 접근방식으로 보면서 과학적인 탐구가 근거하고 있는 선풍학적인 실천적인 세계를 망각하고 있다고 본다. 하이데거는 과학적인 탐구는 존재자에 대한 선풍학적인 실천적인 관계에 입각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선풍학적인 실천적인 관계로부터 과학적인 인식이

이렇게 존재자가 더 이상 도구로서 이해되지 않고 물리화적인 탐구의 대상이 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거주하는 생활세계의 한계가 철폐된다. 생활세계의 한계가 철폐되는 것과 동시에 과학적 고찰의 대상이 되는 것들의 영역의 한계가 확정된다. 우리는 과학적 고찰의 대상이 되는 것을 도구적인 것(das Zuhandene)과는 달리 눈앞의 것(das Vorhandene)이라고 부를 수 있거니와 이러한 눈앞의 것이 갖는 존재에 대한 이해와 근본규정들이 사태에 적합하게 형성될수록 과학적 탐구는 그만큼 더욱 확실하게 행해질 수 있다.

하이데거는 과학이 성립되는 이러한 과정을 가장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수리물리학이라고 본다. 수리물리학은 ‘사실’에 대한 관찰을 종래보다 더 존중함으로써 성립한 것이 아니며 자연현상을 파악하는 데 수학을 적용함으로써 성립했던 것도 아니다. 수리물리학은 자연 자체를 수학적으로 계산될 수 있는 물리적인 자연과 그것의 구성계기들(운동, 힘, 장소, 시간)로 기투함(Entwerfen)으로써 성립한다. 이렇게 기투된 자연의 ‘빛 속에서’ 비로소 수리물리학이 파악하는 물리적인 ‘사실’과 같은 것이 발견될 수 있다. 존재자는 이러한 선행적인 기투를 통해서 개시된 지평 내에서만 자신을 드러내며, 이러한 선행적인 기투에서 독립해 있는 ‘순수한 사실’이란 없다.

물리적 자연이라는 특정한 존재영역에 대한 선행적인 기투에서 보는 것처럼, 특정한 존재영역에 이러한 기투의 전체, 즉 특정한 존재영역의 확정 및 그러한 존재영역에 부합되는 근본개념들의 확정을 하이데거는 주제화(Thematisierung)라고 부르고 있다.¹⁴⁾ 이러한 주제화가 목표하는 것은, 존재자가 생활세계적인 관심과 무관한 순수한 탐구의 객체로 드러날 수 있도록 그것을 개현하는 것이다. 즉 주제화는 존재자가 객관적으로 탐구될 수 있고 규정될 수 있도록 그것을 개현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과학은 탁월한 종류의 현전화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고찰할 경우에만 우리는 과학적인 인식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고 본다.

14) Martin Heidegger, 위의 책, 363pp.

(Gegenwärtigung)다. 우리가 삶의 어떤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도구를 사용하는 것도 하이데거는 현전화라고 부르고 있지만, 과학이 수행하는 현전화는 도구사용의 현전화와는 달리 생활세계의 특수한 목적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자를 그 자체로서 드러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것은 진리를 파악하려는 현존재의 결단에 근거하는 것이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기의 하이데거는 과학의 발생을 존재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탐구에 선행해서 존재자들이 속하는 특정한 존재영역의 근본성격을 사태에 적합하게 개시하는 데에서 찾고 있다. 아울러 그는 개별과학의 엄밀성은 각 존재영역의 사태에 적합한 근본기투를 행하고 그러한 근본기투에 따라서 철저하게 탐구를 수행하는 데서 성립한다고 본다. 이런 의미에서 하이데거는 개별과학의 참된 진보는 개별과학이 자신의 탐구 성과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태에 대한 증대하는 지식과 함께 일어날 수 있는 각 존재영역의 근본구조에 대한 새로운 문제제기를 통해서 일어난다고 본다.¹⁵⁾ 즉 과학의 발전은 각 존재영역의 존재를 개시하는 근본개념들의 근본적인 수정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이다.

근본개념들이란 대상들에 대한 구체적인 탐구에 선행하여 그러한 대상들이 속하는 존재영역을 개시하면서 대상들에 대한 탐구를 주도하는 규정들이다. 과학의 발전은 이러한 근본개념들을 사태에 맞게 정초해 나가는 것을 통해서 일어난다.¹⁶⁾ 따라서 하이데거는 어떤 과학의 수준은 그것이 그 근본개념의 위기를 얼마만큼 극복할 수 있는냐에 의해서 규정된다고 본다. 하이데거는 『존재와 시간』을 집필하던 1920년대에 여러 과학 분야에서 자신들의 탐구를 새로운 기초 위에 놓으려는 경향이 생겨나고 있다고 보았다. 하이데거는 가장 엄밀하고 가장 확고한 과학인 것처럼 보이는 수학마저도 그 당시 수의 본질에 대한 형식주의의 입장과 직관주의의 입장의 갈등이라는 방식으로 심

15) Martin Heidegger, 위의 책, 9pp.

16) Martin Heidegger, 위의 책, 9pp 이하.

각한 정초위기에 빠져 있었다고 말하고 있다. 물리학에서도 상대성이론이 물질의 본질에 대한 근본적으로 새로운 문제제기를 하고 있었고, 생물학에서도 유기체론과 기계론 사이의 논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었다.¹⁷⁾

하이데거는 각 존재영역의 근본적 구조를 드러내는 것을 영역존재론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그러한 영역존재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존재 일반의 의미에 대한 기초존재론적인 탐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하이데거는 자신의 『존재와 시간』을 통해서 이러한 기초존재론을 전개하고, 이러한 기초존재론을 통해서 영역존재론을 전개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려고 했으며 이와 함께 개별과학을 참된 토대 위에 정초하려고 했다. 하이데거는 이러한 영역존재론은 여러 가지 가능한 존재영역들을 연역적으로 구성하지 않고 존재일반의 의미에 입각하여 각 존재영역을 사태에 적합하게 드러내는 일종의 계보학(系譜學)의 형태를 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¹⁸⁾ 우리는 위에서 도구적인 존재의 영역이 어떻게 해서 물리적인 대상의 영역으로 변양되는지를 보았거니와 이러한 변양과정에 대한 하이데거의 탐구도 계보학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

2) 전기 하이데거와 포퍼의 과학관의 비교

전기 하이데거의 과학관은 여러 가지 점에서 포퍼와 유사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포퍼는 과학의 발전은 어떤 이론을 검증하는 사실들의 수집보다는 모험적인 새로운 이론의 창조를 통해서 발전한다고 보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이데거도 과학의 발전은 근본개념들의 변혁을 통해서 일어난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포퍼가 과학이 실재에 대한 점진적인 인식이라고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이데거도 과학은 진리에 대한 관심에 입각해 있다고 본다. 즉 현존재는 일상적인 삶의 세계에서는

17) Martin Heidegger, 위의 책, 9pp.

18) Martin Heidegger, 위의 책, 11pp.

존재자들을 자신들의 삶의 목표와 필요에 따라서 이해하고 해석하지만 과학에서는 그러한 목표와 필요와 무관하게 존재자를 있는 그대로 발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과학에서 이루어지는 근본개념들의 기투는 존재자를 그 자체로서 파악하려는 현존재의 관심과 결단에 입각해 있다고 보고 있다.

이렇게 포퍼와 전기 하이데거의 과학관은 서로 유사한 입장에 서 있기 때문에 근대과학의 성격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서로를 보완해 줄 수 있는 측면이 많다고 여겨진다. 이는 포퍼와 후기의 하이데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후기 하이데거는 근대과학의 근대적인 성격을 강조하고 있고 포퍼는 근대과학의 역사적 성격을 무시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대과학의 성격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양자는 서로 보완할 수 있는 면들이 있다고 생각된다.

특히 전기 하이데거는 포퍼가 전제하고 있는 실재론적인 진리관을 현상학적인 입장에서 정초하고 있다는 점에서 포퍼의 과학철학에 대해서도 보다 견고한 토대를 마련해 주고 있다고 여겨진다. 하이데거는 우리는 일상적인 삶에서 존재자 자체와 관계하지 전통적인 인식론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주관적인 표상과 관계한다고 보지 않는다. 전통적인 인식론에서는 우리는 우리의 표상을 매개로 하여 존재자를 인식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식과 존재자가 어떻게 일치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되었다. 그러나 하이데거는 전통적인 인식론이 제기하는 이러한 문제는 우리를 고립된 주관으로 보면서 우리가 존재자 자체와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관적인 표상을 매개로 하여 존재자와 관계한다고 본 데서 비롯된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하이데거는 우리가 존재자를 지각하고 인식하는 과정 그 자체를 그대로 볼 것을 요구한다. 지각이나 인식에서 우리는 우리의 심리 안에 존재하는 주관적인 표상에 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눈앞에 현존하는 것 자체에 향하는 것이다.

우리는 객관에 대한 하나의 주관적인 표상을 지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존재자 자체를 지각한다. 우리가 어떤 것을 볼 때 우리가

보는 것은 사람이나 창문이지 어떤 감각내용이나 표상을 보는 것이 아니다. 내가 내 뒤에 있는 칠판을 누구에게 지워달라고 할 경우 나는 칠판 자체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지 칠판의 표상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칠판의 표상을 지워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 것이다. 우리의 의식은 항상 이미 존재자 자체에 나가 있다. 어떤 존재자에 대해 단순히 생각하는 것도 그 존재자 자체를 생각하는 것이며 그 존재자의 표상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¹⁹⁾

이런 맥락에서 하이데거는 과학적인 명제든 어떤 명제든 그것의 진리여부는 그것이 직관될 수 있느냐 아니냐에 의존한다고 말하고 있다. 하이데거는 이러한 사실을 드러낸 것이 후설의 공적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렇게 직관을 중시하는 점에서 하이데거는 포퍼가 관찰과 시험을 통한 입증은 어떤 과학이론의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는 시금석으로 보는 것과 입장을 함께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하이데거는 후설이 자신의 지향성 개념을 통해서 인식이론적인 문제의 해명에 커다란 진전을 가져왔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후설이 지각의 지향성을 다른 종류의 지향성들이 그것에 입각해야 하는 가장 근본적인 지향성으로 보았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지각적인 표상작용은 존재자를 관찰자의 눈앞에 대상으로서 갖기 위해서, 즉 대상화하기(Vergegenständlichung) 위해 요청되는 것이지만, 하이데거는 이러한 대상화는 우리가 사물과 관계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식이 아니며 오히려 그것은 존재자를 사용하면서 이해하는 실천적 지향성에 근거해 있다는 것이다.²⁰⁾

우리는 실천적인 차원에서 이미 존재자와 관계하고 이미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과학의 차원에서도 존재자를 그 자체로서 드러내는 것도 가능하게 된다. 과학적인 인식은 세계-내-존

19) Martin Heidegger, 위의 책, 217pp 이하.

20) 후설의 지향성 개념이 갖는 의의와 한계에 대한 하이데거의 견해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할 것. 마르틴 하이데거, 『논리학: 진리란 무엇인가?』(Logik: Die Frage nach der Wahrheit), 이기상 옮김, 까치, 2000. 94쪽 이하.

재로서의 현존재가 존재자와 관계하는 한 방식인 것이다. 하이데거의 이러한 진리관은 과학이 존재자 자체를 인식하는 것이라는 포퍼의 실재론적인 입장을 상당히 강력하게 철학적으로 정당화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전기 하이데거와 포퍼 사이에는 미묘한 차이가 존재한다. 포퍼는 개별과학이 엄밀한 탐구가 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조건을 선행하는 이론을 반증하려는 비판적인 사고가 활발하게 개진되어야 한다는 데서 찾고 있다. 포퍼는 근대물리학이 거둔 성공에 비해서 근대의 사회과학이 부진을 면치 못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을 물리학의 영역에서는 자유롭고 비판적인 사고가 인정되었던 반면에 사회과학에서는 정치권력의 개입 등을 통해서 비판적인 사고가 제대로 인정되지 못했던 데서 찾고 있다.

이에 반해 하이데거는 근대물리학은 물리적인 자연의 본질에 대해서 사태에 적합한 근본기투를 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본다. 그 반면에 사회과학이나 역사과학에서는 사회나 역사의 본질에 대한 사태에 적합한 근본기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물리학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진보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점에서 하이데거는 철학의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를 이러한 개별적인 존재영역의 본질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고 있다. 『존재와 시간』 후반부에서 하이데거가 행하고 있는 인간의 역사성에 대한 분석은 인간의 존재성격에 대한 분석을 넘어서 역사라는 존재영역의 본질을 드러내기 위한 기초를 제공하려는 것이기도 하다. 하이데거는 사태에 부합되는 영역존재론의 수립이 각 존재영역에 대한 개별과학의 엄밀한 탐구를 기초지울 수 있다고 본다. 하이데거는 또한 이러한 영역존재론은 다시 존재 일반의 의미에 대한 기초존재론적인 탐구에 기초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철학의 가장 중심적인 과제는 기초존재론의 수립에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과학이나 역사학의 엄밀한 정초에 대한 양자의 통찰도 서로 모순되는 것은 아니다. 양자는 오히려 서로를 보완할 수 있다.

우리는 사회과학에서 근본기투가 제대로 마련되지 못한 이유를 하이데거가 말하는 것처럼 아직 존재론적인 기초작업이 미비한 데서도 찾을 수 있지만, 포퍼가 말하는 것처럼 사회과학에서는 비판적인 이성 이 활발하게 전개될 수 없었다는 데서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포퍼와 전기 하이데거 사이에는 이렇게 서로를 보완할 수 있는 측면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자 사이에는 무시하기 어려운 심각한 차이가 존재한다.

포퍼는 우리가 세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확보하고 삶에서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신뢰할만한 것은 과학과 과학적인 대화라고 본다. 포퍼는 가설의 정립과 반증, 그리고 보다 나은 가설의 정립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끊임없이 발전하는 과학만이 세계를 가장 실재에 맞게 파악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하이데거는 초기저작인 『존재와 시간』에서 과학이 아니라 오직 죽음으로의 선구(先驅)라는 실존적인 결단을 통해서만 우리는 우리 자신과 세계에 대한 진정한 이해에 도달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우리 자신과 세계에 대한 이해는 우선 대부분의 경우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 통속적인 자기이해와 세계이해에 규정되어 있는 바, 우리가 죽음으로의 선구와 함께 이러한 통속적인 자기이해와 세계이해에서 벗어나는 것에 의해서만 우리에게 진정한 자기와 세계가 개시된다는 것이다.²¹⁾

이와 함께 『존재와 시간』에서 과학은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세계에 근거해 있으며 이러한 일상적인 세계이해에서 파생된 것으로 본다. 즉 전기의 하이데거는 과학은 존재자 자체를 개시려는 진리의 관심에 의해서 규정되고 있지만 그것은 사물과 세계에 대한 근원적인 이해를 제공하지는 않고 어디까지나 파생적인 이해를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과학이 어디까지나 사물과 세계에 대한 근원적인 이해를 주지 못한다고 보는 점에서 전기의 하이데거는 우리가 두 번째 논문에서 살펴볼 후기의 하이데거와 일치하고

21) Martin Heidegger, 앞의 책, 1972, 260쪽 이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포퍼의 과학관과 전기 하이데거의 과학관을 어떻게 서로 생산적으로 매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음 두 번째 논문에서 논하기로 한다.

참고문헌

1. 하이데거의 저작 및 이차문헌

1) 하이데거의 저작

Sein und Zeit, Tübingen, 12판, 1972.

전집 4권 *Erläuterungen zu Hölderlins Dichtung*

전집 5권 *Holzwege*

전집 7권 *Vorträge und Aufsätze*

전집 8권 *Was heißt Denken?*

전집 9권 *Wegmarken*

전집 15권 *Heraklit*

전집 29/30권 *Grundbegriffe der Metaphysik*

전집 45권 *Grundfragen der Philosophie*

전집 54권 *Parmenides*

전집 55권 *Heraklit*

Nietzsche I, II. Pfullingen. 1961

『논리학: 진리란 무엇인가?』(Logik: Die Frage nach der Wahrheit),
이기상 옮김, 까치, 2000.

『세계상의 시대』(Die Zeit des Weltbildes), 최상욱 역, 서광사, 1995.

『기술과 전향』(Die Technik und die Kehre), 이기상 옮김, 서광사,
1993.

2) 2차문헌

소광희, 이수정, 박찬국 공저, 『하이데거 - 그의 생애와 사상』, 서울
대출판부, 1999.

박찬국, 『들길의 사상가 - 하이데거』, 동녘, 2004.

- 박찬국, 『하이데거와 나치즘』, 문예출판사, 2001년.
- Annemarie Gethmann-Siefert und Otto Pöggler(hrsg.). *Heidegger und die praktische Philosophie*, Frankfurt a.M. 1988.
- Bast, Rainer A., *Der Wissenschaftsbegriff Martin Heideggers im Zusammenhang seiner Philosophie*, Frommann-Holzboog, 1986.
- Haeffner, Gerd. *Heideggers Begriff der Metaphysik*, München, 1974
- Held, Klaus. *Grundstimmung und Zeitkritik bei Heidegger*, in: Papenfuß/Pöggeler(hrsg.), *Zur philosophischen Aktualität Heideggers* Bd.1, Frankfurt 1991.
- Köchler, Hans. *Skepsis und Gesellschaftskritik im Denken Martin Heideggers*, Meisenheim am Glan 1978.
- Reinhard Margreiter/Karl Leidmeier(Hrsg.). *Heidegger Technik-Ethik-Politik*, Würzburg, 1991.
- Safranski, Rüdiger. *Ein Meister aus Deutschland - Heidegger und seine Zeit*, Frankfurt a.M. 1997.
- Schluter, Jochen, *Heidegger und Parmenides: ein Beitrag zu Heideggers Parmenidesauslegung und zur Vorsokratiker-Forschung*, Bonn, 1979.
- Vietta, Silvio. *Heideggers Kritik am Nationalsozialismus und an der Technik*, Tübingen 1989.
- Zimmerman, Michael E. *Heidegger's Confrontation with Modernity, Technology, Politics, and Art*, 1990.

2. 포퍼의 저작 및 2차문헌

1) 포퍼의 저작

- 『열린사회와 그 적들 1-2』(The Open Society and its Enemies), 이명현/이한구 공역, 민음사, 1987.

- 『추측과 논박: 과학적 지식의 성장 1-2』(Conjectures and Refutations: the Growth of Scientific Knowledge), 이한구 역. 민음사, 2001.
- 『칼 포퍼: 우리는 20세기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The Lesson of this Century), 이상현 옮김. 생각의 나무, 2000.
- 『과학적 발견의 논리』(The Logic of Scientific Discovery), 박우석 옮김, 고려원, 1994.
- 『역사주의의 빈곤』(The Poverty of Historicism), 이석윤역, 지학사, 1975.

2) 2차문헌

- 프레데릭 라파엘(Frederic Raphael), 『포퍼』(Popper), 신중섭 옮김. 궁리, 2001.
- 브라이언 매기, 『칼 포퍼: 그의 과학철학과 사회철학』, 이명현 역, 문학과 지성사, 1982.
- 박은진, 『칼 포퍼, 과학철학의 이해』, 철학과 현실사, 2001.
- H.I. 브라운, 『새로운 과학철학』, 신중섭 역, 서광사.
- F. 슈타르크(Franz Stark) 편, 『혁명이나 개혁이나?: 허버트 마르쿠제와 칼 포퍼의 논쟁』(Revolution order Reform?), 박성수 역. 인간사랑, 1978.
- 신일철 편, 『포퍼』, 고려대학교 출판부, 1990.
- 신중섭 지음, 『포퍼와 현대의 과학 철학』, 서광사, 1992.
- 데이비드 에드먼즈/존 에이디노, 『비트겐슈타인은 왜?』(Wittgensteins Poker), 김태환 옮김, 웅진 닷컴, 2002.
- 이한구, 『역사주의와 역사철학: 칼 포퍼의 비판적 합리주의와 역사주의의 논쟁을 중심으로』, 문학과 지성사, 1987.
- 조용현, 『칼 포퍼의 과학철학』, 서광사, 1992.
- A.F. 차머스, 『현대의 과학철학』, 신일철 역, 서광사.
- 토마스 쿤/포퍼/라카토스 외, 『현대 과학철학 논쟁: 쿤의 패러다임 이

론에 대한 옹호』, 조승옥/김동식 옮김, 아르케, 2002.

Albert, Hans, *Traktat über kritische Vernunft*, Tübingen, 1991.

_____, *Kritik der reinen Hermeneutik: der Antirealismus und das Problem des Verstehens*, Tübingen, 1994.

Bayertz, Kurt, *Mythologie der 'kritischen Vernunft': zur Kritik der Erkenntnis- u. Geschichtstheorie Karl Poppers*, Köln, 1977.

Henke, Wilhelm, *Kritik des kritischen Rationalismus*, Tübingen, 1974.

Keuth, Herbert, *Realität und Wahrheit: zur Kritik der kritischen Rationalismus*, Tübingen, 1978.

_____, *Die Philosophie Karl Poppers*, Tübingen, 2000.

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f Heidegger's and Popper's
Thoughts on Science**

Park, Chan-Kook

Heidegger and Popper had totally divided views on almost all philosophical themes such as of human beings and the world, science and philosophy, society and history, and etc. Popper thought that only scientific reason and discussions based on scientific reasoning gave reliable understanding of human beings and the world. On the contrary, Heidegger thought that pre-scientific life-world in itself contained an understanding of human beings and the world, and that we could reach a more profound understanding of the world only by deepening and purifying those everyday understanding with poetry and art. According to Heidegger, poetry and the art were not only the expressions of our subjective feelings but gave us a more profound and fundamental understanding of the world than science.

Even though there are great differences between the two thinkers, because of such differences a dialogue between them is possible and, more so, necessary. In my opinion, both thinkers have presented a very interesting and unique views on science and the present age of human beings and the world. Each viewpoint is valid with limits, but each emphasized only one side of reality and history.

The main purpose of this research is in mediating a productive dialogue between Popper and Heidegger after comparing both thinkers' thoughts on science. In this paper I will compare Popper's and Heidegger's earlier thoughts on science. After, an attempt to mediate a dialogue between both thinkers will be made in a second paper that would compare the later thoughts of Heidegger and Popper.

Keywords: Heidegger, Popper, Theory of Falsification, World around us, Thematizing, Running ahead to one's own death

